

파체코 코스타리카 대통령 내외 주최 국민만찬 답사

존경하는 아벨 파체코 대통령 각하 내외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우리 내외와 일행을 환대해 주신 각하 내외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
민국 국가원수로는 처음 코스타리카를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
니다.

아름다운 자연 위에 평화와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있는 코스타리카는 꼭 한번
와 보고 싶었던 나라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친절하고 활기찬 코스타리카 국
민들을 보면서 중미의 선도국가로서 여러분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
니다.

각하께서는 수출과 투자유치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복지와 치안 강화, 그리고
부패척결로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또한 유엔 인권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국제 인권보호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하의 탁월한 지도력과 국민의 역량으로 코스타리카가 큰 발전을 이뤄 갈 것
으로 확신합니다.

대통령 각하,

오늘 오전에 가졌던 한·시카(SICA) 정상회담은 상호 이해와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각하와 코스타리카 정부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하와의 정상회담도 매우 유익했습니다. 우리 두 나라가 협력할 분야가 많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IT 분야의 협력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코스타리카의 수준 높은 IT 인력이 한국의 DMB, 휴대 인터넷 같은 첨단 기술과 만난다면 큰 시너지효과를 내게 될 것입니다.

BT 분야 협력도 큰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립을 약속한 생물자원공동연구센터는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 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제휴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는 많은 코스타리카 국민들이 한국을 찾아 주셨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에서 '한·코스타리카 친선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코스타리카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민간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통령 각하,

코스타리카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비롯한 우리의 대외정책을 한결같이 지지해 주었습니다. 또한 자유와 인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중미지역의 평화 정착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 협력과 통합의 질서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좋은 친구이자 귀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의 이번 방문이 양국의 유대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정말 일생에 몇 번 안되는 아주 훌륭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각하께

서 코스타리카의 가장 명예로운 훈장을 제게 주셨습니다.

저도 각하께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각하께 드리고자 하는 선물도 역시 훈장입니다. 한국과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아주 큰 공로를 세운 국가원수에게 드리는, 우리 한국에서 가장 품격이 높은 훈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코스타리카 대통령께 드릴 우리 한국의 최고 훈장은 무궁화 대훈장입니다. 무궁화는 우리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꽃의 이름입니다.

오늘 저는 선물을 하나 더 받았습니다. 공식 정상회담에 앞서서 각하와 인사하는 자리에서, 나중에 하나의 직업만을 선택해서 묘비에 기록한다면 어떤 직업을 기록하시겠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시인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는 소설도 많이 쓰시고 했는데, 그중에 '피부 깊숙이' 라는 소설은 금년 가을호 「세계의 문학」이라고 하는 한국 잡지에 실렸습니다. 한국의 그 잡지는 세계 문학을 소개하는 유일한 잡지로서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잡지입니다. 그 잡지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작품만이 실리게 돼 있습니다. 각하께서는 우리 한국의 문학계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작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결론은 아닙니다. 결론은 최고의 작가이신 대통령께서 저를 보고 시인이라고, 시인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습작을 통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고 또 그 뒤에 소위 등단이라는 아주 어려운 절차가 있는데, 저는 그런 절차 없이 바로 시인이 됐으니까 제게는 이 훈장 못지않은 아주 훌륭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을 그만두면 숲을 가꾸는 일을 해 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대통령 각하께서 제게 시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니까 시 쓰는 노력도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준비해 온 훈장을 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빈 여러분,

각하 내외분의 건강과 코스타리카의 무궁한 발전, 그리고 우리 두 나라의 영원한 우정을 위해 건배를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